



답안지 (인문계)

답안지 바코드

Blank area for student information

지원학과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예:020301)	

- 수험생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펜(볼펜, 연필, 사프)으로 작성하십시오.
(빨간색이나 파랑색 사용금지)
 2.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지우개(연필, 사프 사용 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볼펜 사용 시) 그 위에 재 작성하십시오.
 3.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한 답안지는 "0"점 처리 됩니다.
 4. 본 고사는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지 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답안지 제출은 불가합니다.

제시된 (개)는 폭력 행위를 거시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폭력은 무력
을 미행한 (개)는 폭력 행위를 거시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폭력은 무력
폭력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비가시적이면
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구조적 폭력으로써 사회
에 만연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쉽게 인지할 수 없다. 우리가 정의
의롭고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절차 속에 구조적 폭력의
모습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생각을 쉽게 조종하거나 바
꿀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비판적 의식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구조적 폭력이 내제된 법과 제도로 구조적 모순을 정
당화시키고 언론을 통한 한 지식 은폐나 왜곡이 결과적으로 폭력의 가
해자를 보호하고 모호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간접적 폭력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의 입장에서 (나)에 나타난 죄수의 죄목의 품자는 구조적
폭력을 법과 제도를 통한 합법적 절차로 정당화시키는 사회를 비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의 간수는 투시죄, 벌금죄, 및지 않은
죄 등 상식적으로 죄라고 할 수 없는 죄목을 말하고 있다. 이는
사회에 저항하거나 투쟁하려는 이들을 억압하기 위한 지배 계급의
일방적인 폭력 행사이다. 사회의 모순을 알리고 진실을 투시하고 이를
알리고자 판단을 내리고 진리를 및지 않으려는 자들을 극가의 법과
재판을 통해 관도 안되는 죄목을 만들어 죄를 뒤집어 씌운 뒤 지배
계급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는 (내)에서 말한 구조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내)의 화자가 느끼는 당혹감은 가해자의 모호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더욱 날카로운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고 적, 즉
가해자는 많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제의 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폭
력을 행사한 주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
조적 폭력으로 인한 폭력 책임의 분산이 가해자를 명확히 가려내지
못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화자가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 날에 적이 개진하는 표현이 폭력의 책임 소지 불분명으
로 가해자가 은폐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적어 어디
에 있느냐"와 "적은 꼭 있어야 하느냐"를 통해 가해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허탈감, 그리고 폭력의 주체 그 자체가 이 사회의
구조이므로 가해자를 밝히는 것의 무의미함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법과 제도, 언론을 통한 가해자 보호, 은폐, 그리
고 폭력 책임 소지 분산이 폭력의 주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결국
구조가 가해자라는 구조적 폭력이 화자의 당혹감을 촉발시킨 것이다.



답안지 (인문계)

답안지 바코드

Blank area for barcode

지원학과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예:020301)	

- 수험생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펜(볼펜, 연필, 사프)으로 작성하십시오.
(빨간색이나 파랑색 사용금지)
 2.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지우개(연필, 사프 사용 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볼펜 사용 시) 그 위에 재 작성하십시오.
 3.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한 답안지는 '0'점 처리 됩니다.
 4. 본 고사는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지 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답안지 제출은 불가합니다.

를 일컫는 '직접 폭력'

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는 이 물음에 답한다. 오랜 사회동명상 폭력은 신체적·물리적 피해에 국한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폭력은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쉽게 발견되는 비권력자들의 폭력에 비해 권력자들의 폭력은 소리 없이 진행된다. 그것을 쉽게 폭력이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권력자들의 폭력은 크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구조적 폭력'이라 하는데, 구조적 폭력은 커다란 사회 위에 숨어서 행해진다. 윤리, 제도, 조직 등 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불분명하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만약 가해자가 특정된다 해도, 언론·종교·학문과 같은 큰 세력이 가해자를 합리화하고 은폐시키기 때문에 가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들은 (나)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세 명의 죄수들은 법률 뒤에 숨어 행해진 구조적 폭력들을 증자한다. 모든 것을 투시한 죄, 물론을 내리려 한 죄, 잊어버리지 않는 죄와 같이 그들의 죄목은 허무맹랑하지만, 어찌 되었건 죄목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감금이다. 이는 제도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들의 민낯을 조롱한다. 특히나 투시를 하는 죄수는 가해자가 지배층이라는 사실을 더욱 선명히 나타낸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를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공적이고·정당한' 죄수로 만든 것이다.

(가)와 (나)에 나타난 구조적 폭력에 대한 하위 계층의 혼란과 당혹감은, (다)에서 극대화된다. (다)의 화자는 그의 적에 대해 본한다. 양심과 득기를 빨리는 듯 하지만, 정작 적의 정체에 대해서는 모른다. 자신의 적을 찾기 위해 타인들을 떠들러도 적을 찾지 못하며, 심지어는 '적은 꼭 있어야만 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묻기까지 한다. 본명 적이 있음에도 그를 찾지 못하는 혼란과 당혹감이 나타나는데 행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적으로 수사, 판공인, 운전수와 같은 사회적 하위 계층들을 떠올린다. 그들은 본명 적이지만, 화자의 '직접적 폭력의 가해자'들이다. '구조적 폭력'을 행하는, 화자의 '진짜 적'은 그는 찾지 못한다. 구조적 폭력의 가해자들은 사회적 구조, 관습 뒤에 숨어 증발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구조적 폭력의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자신과, 이 사회에 대해 당혹감을 느낀다. 그리고 만약 구조적 폭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화자의 당혹감은 앞으로도 계속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